

아키비스트의 객관성에 대한 재고찰*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인류학적 방법론을 통해

윤 은 하**

1. 서론
2. 클리포드 기어츠와 『문화의 해석』
3. 인류학자와 아키비스트 : 타자와의 대면
4. 아키비스트와 인류학자 : 타자의 타자성을 이해하기
5. 저자로서 아키비스트 : 우리를 드러내기
6. 결론

* 본 논문은 2014년도 전북대학교 신입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2012년 7월 미국 UCLA대학에서 개최된 Archival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AERI)와 2014년 1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센터 제54회 콜로кви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전북대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조교수, 문화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eyoun@jbnu.ac.kr). 주요 논저 :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호, 2012; 앤 길리랜드, 윤은하, 「문화간 차이 속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임무: 균형된 관계를 모색하며」, 『역사문화연구』 43호, 2011.

▪투고일 : 2015년 12월 23일 ▪최초심사일 : 2015년 12월 24일 ▪게재확정일 : 2016년 1월 4일

[국문초록]

기록학이 일반 대중이나 사회적 소수자의 기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기록을 수집하려는 시도를 한 지는 오래지만, 기록 공동체 간 문화적 이질성과 타자성에 대한 주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리와 상이한 공동체들의 기록을 수집·정리할 때, 공동체의 기록과 기억을 그대로 옮겨올 수 없기 때문에 문화적 타자라 할 수 있는 공동체의 기억과 타자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타자성에 대한 이해는 공동체 기억을 왜곡시키지 않고 보존하는데 근간이 되며 나아가 젠킨슨 이래 줄곧 논의되었던 아키비스트의 객관성에 관한 논제와도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 저자는 타자성에 대한 이해와 아키비스트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를 인류학 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징인류학자로 불리며 상징을 통한 새로운 인류학적 해석 방법론을 주장한 클리포드 기어츠의 이론을 근간으로 기록학에서 타자성에 대한 논의를 소개했다. 저자는 그의 해석적 방법론은 상이한 문화적 공동체에 속해 있는 아키비스트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문화적 산물로서 기록을 이해하는데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러한 기어츠의 주장에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해석학의 기록학적 함의를 고찰하고 이를 아키비스트의 객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방향으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 공동체 아카이브, 아키비스트의 객관성, 인류학적 방법론

1. 서론

기록관리에 있어 가치중립과 객관성 유지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오랫동안 아키비스트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이자 철학이었다. 객관성에 대한 요구는 이른바 행정적 법적 증거를 보존, 관리한다는 아키비스트의 현실적 업무와 직결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록이 인간 행위의 증거로 기록관리는 이를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영역의 본질적 사명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아키비스트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19세기 영국의 고전적 기록학자 힐러리 젠킨슨(Hilary Jenkinson)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젠킨슨에게 기록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것으로 아카이브는 이러한 기록을 수집하는 불편부당한 진리 장소였다. 그는 절대적 진리의 공간인 아카이브의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아키비스트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등장한 관료주의 사회에서 요구되었던 공평무사하고 효율적 행정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기록관리의 가치로 전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젠킨슨은 아키비스트가 직접적으로 기록의 가치를 평가하고 선별과 폐기를 결정하는 일은 과거의 증거의 신성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키비스트의 개입을 아카이브의 객관성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했고 그 결과 아키비스트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다.¹⁾ 사실상, 이러한 젠킨슨의 주장은 19세기 후반 당시 실증주의적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당시 유행했던 실증주의는 인간과 사회도 자연과학처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할 것을 중용했다.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가치가 개입됨으로서 생기는 주관적 판단을 극도로 경계하며 대상

1) Terry Cook,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Vol.13, 2013, pp.95~120; 최재희, 「기록물평가 정책과 대량동종기록물 선별- 영국 TNA를 중심으로」, 『기록인』 33호, 2015, 26~38쪽.

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위해 가치중립적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과학주의적 실증주의는 콩트의 사회학과 랑케의 역사학을 탄생시켰으며 기록학에서는 젠킨슨의 평가론의 근간이 되었다. 이후, 20세기 테오도르 쉘렌버그(Theodore Schellenburg)는 이러한 젠킨슨의 주장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알려져 있다시피, 쉘렌버그는 두 번의 세계 대전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정부 기록을 목도했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키비스트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는 기록의 증거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아키비스트의 가치 판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했다. 쉘렌버그 이후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가치를 결정하고 평가하며 폐기하는 전문직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러한 업무에 있어 아키비스트의 가치중립적 객관성은, 그것이 가능하던 가능하지 않던 간에, 반드시 수호되어야 할 중심가치로 인식되었다.

한스 붐스(Hans Booms) 이후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실천 전략이 모색되면서 아키비스트의 객관성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왜냐하면 좀 더 폭넓은 사회적 기록과 맥락을 포착하기 위해 아키비스트가 아카이브 생태계의 편중성을 지적하고 사회 전반의 기억을 공평하게 회복시키기 노력할수록 아키비스트의 주관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는 아카이브가 전통적으로 수호해오던 객관성과 불편부당성의 직업적 가치는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리처드 콕스(Richard Cox)의 서부뉴욕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적용 사례처럼 한 사회에 대한 전략적 기록화를 포괄적으로 시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련의 합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을 도큐멘테이션 할 것인가, 어떠한 주제를 선정할 것인가, 전략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논제에 더 가까웠다. 선택된 주제들에 대한 전략 주체들 간 이견은 쉽게 좁

혀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객관성은 대중과 사회적 동의는커녕 위원회 내부에서도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²⁾ 사회적 기록화에 대한 몇 번의 시도가 난관에 부딪히며 아키비스트들은 젠킨슨이 강조하던 아키비스트의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에 대한 믿음과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직업적 사명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다양한 전략적 방법들이 모색되었고, 이는 스스로 내린 기록 관리의 결정을 재차 확인하거나 혹은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등장한 공동체 아카이브는 종종 적어도 도큐멘테이션 전략 전 과정에서 드러난 아키비스트 주관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든, 비켜갈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공동체 아카이브는 아키비스트에 대해 공동체를, 기록관리전문성에 대해 내부 공동체 구성원의 동의를 우위에 놓음으로써 아키비스트의 한계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이러한 솔직함과 겸손함으로 변화의 추동력을 얻는 동시에 기록의 고유한 가치를 찾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록학은 기록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고 사회적 기억의 수호자로 인접학문과 구별되는 독자적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³⁾. 그러나 이러한 획기적인 대안으로도 아키비스트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라는 사실은 해결될 수 없었다. 아키비스트가 주관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공동체의 경험과 권리를 존중할수록, 그리고 생산자로서 공동체가 가지는 주체적 인식론적 기반을 강조할수록 아키비스

-
- 2) Richard Cox, "A Documentation Strategy Case Study: Western New York," *American Archivist*, Vol.52, 1989, pp.192~200; 이승역, 「경계밖의 수용: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연구』 38호, 2013, 189~223쪽; 이승역, 「동시대 기록화를 지향하는 보존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제언」, 『기록학연구』 42호, 2014, 185~211쪽.
- 3)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 연구』 33호, 2012, 3~37쪽; 윤은하, 「북미 기록학의 동향과 전망: 패러다임 변화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호, 2011, 77~94쪽; 앤 길리랜드, 윤은하, 「문화 간 차이 속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임무: 균형된 관계를 모색하며」, 『역사문화연구』 43호, 2012, 193~214쪽.

트가 공동체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과 시간은 그 정당성의 기반을 잃는 듯하였다. 왜냐하면 공동체 고유의 기록의 의미와 기능, 재현의 방법들은 종종 아키비스트의 이론적 장치들이 포착해 내기 어려웠으며 대개 공동체의 기억과 경험은 아키비스트의 경험과 유리된 것으로 그들과 다른 낯선 세계에 속한 아키비스트가 개입할수록 그들의 기억은 왜곡되기 쉬웠기 때문이다.

아키비스트들은 그들의 경험이 우리의 해석에 우선하며, 우리의 전문성은 생산자 기억의 권리와 이에 대한 주체적 결정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이는 흑인 공동체의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백인 아키비스트 이야기이자, 동성애자 아카이브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지켜내려는 이성애자 아키비스트의 이야기이며, 세월호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동서로 분주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들의 기록을 그들처럼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릭 케텔러(Eric Ketelaar)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아키비스트의 전문성이 아키발리제이션(archivalization)⁴⁾을 야기하는 단초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즉, 아키비스트가 ‘진실의 문지기(truth of gatekeeper)’에 불과하다는 켄킨슨주의의 소극적 정체성을 충분히 극복하고 기록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신하는 지금 우리는 다시 투명인간이 되길 요구 받고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이 제기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타자’에 대한 논의를 기록 연구의 중심에 위치시켰다는 데에 있다. 해외 기록학에서 푸코와 사이드에 의해 소개되었던 ‘타자’의 개념은 우리 사회의 타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권력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지에 대해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 고찰을 가능하게 했다. 이들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최근 기록학은 우리 사회 타자의 타자성을 왜곡시키지 않

4) Eric Ketelaar, "Archivalization and Archiving," *Archives and Manuscripts* Vol.27, 1999, pp.54-61.

으며 어떻게 그들의 기록을 수집, 관리, 보존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대중이 일상을 영위하며 생산해 낸 기록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침예한 갈등의 순간에 생산된 기록일 수도 있으며, 잊혀지고 소외된 소수 공동체의 경험을 반영한 기록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아키비스트는 타자의 경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수많은 의미의 층위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기록들을 보존하여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요구를 받았다.

사실상, 기존의 타자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객관적 이해의 강조는 다원적 문화 속에 존재하는 주체와 타자간의 인식론적 간극을 무시한 채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인 가치체계를 상정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객관주의적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는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의 실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초월적인 객관적 지식을 가정한다. 그러나 이는 개별 문화에 속한 공동체 구성인과 아키비스트의 의식적 범주를 벗어난다는 오류를 범한다. 따라서 몰가치적이고 획일적인 가치체계에 기인한 실증주의적 객관성의 가치를 다층적 의미를 지닌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는 아카이브의 가치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더욱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타자성에 대한 논의는 역사학이나 인류학에서 1990대와 2000년대를 거쳐 이미 끌어 오르는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사실상, 객관성에 대한 고민은 아키비스트 뿐 아니라 객관적 역사서술을 지향하면서도 과거인과의 인식론적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역사가나 미지의 원주민과 인식론적 간극을 좁힐 수 없는 인류학자들의 고민이기도 했다.⁵⁾

5) 역사학자 로버트 단톤(Robert Darnton)과 린 헌트(Lynn Hunt)으로 대표되는 신문화사가들은 기어츠의 방법론을 자신들의 연구 속에 위치시키고 타자로서 과거인들의 행위와 문화를 해석하고자 했다. Robert Darnton, *The Great Cat Massacre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Basic Books: New York, 1984; Lynn Hunt, "Introduction: History, Culture, and Text," *The New Cultural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os Angeles, 1989.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저서는 역사학과 인류학 모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의 이론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아키비스트가 지향해야 하는 객관성의 근거를 상정하고 이를 준거로 삼아 기록학에서 전통적인 객관성의 가치를 새롭게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객관성의 신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모든 인문학자들의 공통된 고민과 논의를 기록학에 접목시킴으로써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일반론과는 구분되는 우리만의 새로운 방법론을 찾고자 한다.

2. 클리포드 기어츠와 『문화의 해석』

문화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는 20세기 후반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재정립한 인물이자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 Strauss)와 더불어 인접 분야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의 인류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2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고 안티오크 대학에서 영문학과 철학을 전공한 뒤 하버드 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했다. 1970년부터 프린스턴에서 연구와 강의를 계속했고 2000년 은퇴 후 2006년에 심장병으로 사망했다.⁶⁾ 기어츠는 언어철학과 문학적 분석이 사회과학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의미와 상징을 해석하는 인문학적 작업으로 인류학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인류학이 단 하나의 객관적 진리를 발견하는 과학이 아니라 다층적 해석을 이끄는 글쓰기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절대적 해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⁷⁾. 『문

6) Clifford Geertz, *Works and Lives: The Anthropologist as Author*, 1988, 김병화 역, 『저자로서의 인류학자』, 문학동네, 2014.

7) 위의 글, 2014.

화의 해석』⁸⁾은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기호학론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문화와 상징을 기호와 텍스트의 관계로 간주하며 문화 연구에 해석적 방법을 도입했다. 이에서 기어츠는 상이한 문화 간의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연구자의 의미 체계와 행위자의 의미 체계를 지속적으로 오가며 행위자의 의미 체계를 두텁게 읽어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를 통해 인류학적 현상에 대한 단 하나의 이해와 해석만이 존재한다는 과학적 객관성에 근거한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탈피시키고자 하였다. 즉, 『문화의 해석』에서 그는 객관성은 단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를 수호하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열어두고 열린 해석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납득할 만한 논리를 추구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주장했다. 이후, 기어츠는 15년 뒤 『저자로서 인류학자』에서 인류학적 작업을 수행하는 인류학자들이 민족지를 기술하는 모습을 문학적 작업을 하는 저자로 도치시켜 이해했다. 이 책에서는 사실상 인류학적 글쓰기가 객관성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숨은 장치들을 이해했는데 이러한 점은 비단 인류학자 뿐 아니라 아키비스트를 비롯한 타학문 연구자들에게도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좀 복잡하기는 해도 아키비스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타문화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해야 하는지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학문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저자는 기어츠 이론이 단 하나의 가치와 해석에 대항하여 열린 다층적 해석과 가치를 허용함으로써 절대적 객관성을 추구하는 젠킨슨식의 전통적 사고에 반기를 드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문옥표 역, 『문화의 해석』, 까치, 2009.

3. 인류학자와 아키비스트 : 타자와의 대면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오리엔탈리즘』에서 문화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의 문화 체계에서 생산된 문화적 관점을 다른 문화에 그대로 적용할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지적했다.⁹⁾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 역시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를 통해 문화간 이질성과 그 속에 함몰된 주체들에 대해 논의했는데¹⁰⁾ 이러한 기록학 외부 이론가들의 자기 반성적 성찰은 새로운 기록관리 방법론을 자극했다. 이러한 담론들은 기록을 생산해내고 관리하는 행위를 하나의 문화적 표상으로 다룸으로서 기록관리를 단순한 행정 처리식 효율성을 강조하는 학문에서 권력 담론을 실질적으로 탐색하는 학문으로 바꾸어 놓았다.

미국과 호주의 기록학자 앤 길리랜드(Anne Gilliland)와 슈 메케미쉬(Sue McKemmish)는 2005년 논문, “Community of memory: Pluralizing Archival Research and Education Agendas”¹¹⁾에서 이미 “불가공약존재론 (incommensurable ontology)”라는 말로 상충하는 두 문화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론적 간극에 대해 언급한 적 있다. 그들은, 기록학에서 상이한 문화 내에 존재하는 인식론적 간극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의 문화 체계에서 생성된 개념적 장치를 일방적으로 다른 쪽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즉, 이질적 문화체계에 속하는 아키비스트와 기록 생산자(혹은 공동체)가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인식체계를 강요할 경우 양자에 대한 서로의 이해는

9) Edward Saïd, *Orientalism*, 박형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9.

10) Gayatri Spivak, *Can Subaltern Speak?*,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그린비, 2013.

11) Sue McKemmish, Anne Gilliland, and Eric Ketelaar, “Communities of Memory: Pluralizing Archival Research and Education Agendas,” *Archives and Manuscripts*, Vol.33, 2005, pp.146~171.

심각하게 왜곡되고 본질에서 멀어진다. 종종 아키비스트는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을 객관성, 혹은 중립성이라는 합리주의적 가치체계로 도치시키며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한다. 사실상, 아키비스트가 객관적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문화체계를 공동체의 기억을 이해하기 위해 동원할 경우 공동체 기억은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즉, 순수한 의미에서 아키비스트의 이해는 공동체 기억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차이와 같다. 서양 의학과 동양의 한의학은 전혀 다른 문화 체계에서 생성되었으며 인체와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상이한 철학에 근간하고 있다. 서양의학은 한의학의 ‘기(氣)’ 혹은 ‘기의 순환’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나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의학의 여러 원리나 사상에 대해 서양의학이 그들의 전문적 용어로 설명하면 할수록 ‘기(氣)’라는 개념은 그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것과 같다.¹²⁾

기어츠에 따르면, 인식론적 차이는 인간이 “그물을 짜고 있는 거미와 같은 존재”¹³⁾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어츠는 인간은 스스로의 문화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도리어 이를 무한히 확장해가며 존재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문화 속에서 상징을 수용하고 생산과 재생산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찾아간다. 인간은 단순히 경험 자체의 이해를 통해서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나의 문화체계 속에서 재조직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인간은 실재를 보고 끊임 없이 문화를 만들며 다시 그 모델의 지시에 따라 그의 앞에 놓인 아직 상징화되지 않은 체계를 조직해 나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낯설고 기묘한 현상에 접했을 때, 그들은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에게 익숙한 개념 도구를 통해 반드시 그 낯선 대상들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곧 그들이

12) 기어츠, 앞의 글, 2009, 24~25쪽.

13) 위의 글, 11~50쪽.

세계를 이해하는 일반적인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문화 체계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을 현상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부단히 자신의 경험을 상징체계 내에서 해석하려 애쓴다. 일단 완성된 상징체계는 매번 분석될 필요 없이 새로운 대상을 접하고 그것을 정리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용된다. 이 과정을 통해 상징체계는 지속적으로 인간의 경험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소들을 연결시키며 스스로를 확장해 나간다.”¹⁴⁾ 즉, 일상을 유지하는 인간의 존재 양식이 상징이며, 공동체는 문화를 통해 이러한 상징의 규칙을 이해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켜나가게 하는 시간적, 공간적 장이다. 이러한 여러 상징의 총체적인 모습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 기어츠의 문화이며, 문화는 공동체의 생성과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기어츠는 자신의 저서에서, 문화는 상징이 복잡하게 그물망처럼 얽혀 있으며 마치 구조와 패턴, 직조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상호 연관된 여러 의미들이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구조이며 동시에 하나의 전체이지만 그 전체는 많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기어츠 이론은 많은 부분 이러한 인식론적 지평이 가지는 차이와 간극에 대해 할애하고 있다. 기어츠는 이를 자바인의 예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자바인’에게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바인(Java)들은 그들 특유의 단어와 어휘를, 그들의 특유의 음성으로, 사회적 상황에 맞게 매우 완곡하게 표현한다. 자바인들에게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리방식으로 만들어진 특정한 요리를 먹는 것이며, 그들 특유의 식사 예절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바인의 감정은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것으로 서구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¹⁵⁾ 문제

14) 위의 글, 11~50쪽.

15) 위의 글, 51~76쪽.

는 자바인들처럼 모든 인간들은 그들만의 상이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람들이 상이한 문화적 패턴 속에서 존재하는 각자의 의미와 상징을 따름으로써 만들어 지는데, 그 문화적 상이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문화에 속한 개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통된 인식의 지평이 부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어츠는 문화적 차이를 초월할 수 있는 보편적 이해의 지평의 가능성을 주장했던 말리노프스키(Bronislaw Kasper Malinowski)와 정반대의 입장을 피력한다. 인류학자 말리노프스키는 그가 원주민과 함께 살며, 그들과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스스로 원주민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대상으로 이입시키거나 혹은 대상이 되는 원주민의 감정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말리노프스키의 주장에 대해 기어츠는 “감정이입의 방법을 통해 원주민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마치 누군가의 피부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¹⁶⁾”라고 단언한다. 감정이입, 즉 경험에 근접한 의미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상이한 사회와 문화에 접근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낭만화된 가정에 불과하다. 원주민이 느끼고 생각하고 지각하는 방법을 인류학자는 알 수가 없다.¹⁷⁾ 이는 우리가 공동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더 열심히 살펴보면 말리노프스키처럼 우리가 그들이 되거나, 혹은 그들이 우리가 되어 사건을 이해하고 그들 기록의 중요성을 우리처럼 인식할 것이라고 하는 믿는 것은 인류학자의 바램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분노에, 그들의 상처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생각은 일종의 환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이한 문화체계 간 보편적 인식 지평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16) Clifford Geertz, *Local Knowledge: Further Essays in Interpretive Anthropology*, New York: Basic Books, 2008.

17) *Ibid.*, pp.55~56.

서로 다른 담론간의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가다머 이전에서부터 해석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던 것이다. 이는 인간이 하나의 상징체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에 기인한다. 인간의 이해가 자신을 둘러싼 문화 속에서 끊임없는 전유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사물에 대한 이해가 자신의 속한 그물망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문화를 벗어난 가치중립적이고 절대적 객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각 개별적 문화와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법칙정립적인 절대적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상이한 의미체계에서 생산한 객관성과 합리성의 기준이 원주민의 일상에 적용될 때, 그 체계에 편입될 수 없는 종종 그들의 행위는 종종 단지 낯설고 기이한 형상으로 남았다. 이러한 지적은 정확히 현재 기록학계가 당면한 당황스러움을 그대로 포착한 것이다. 기어즈적 함의를 따라가면 객관적 “기록”과 “아카이브”는 서구인들이 자신들의 상징과 문화 체계 속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상징체계이자 문화적 장치였고, 기록관리는 객관성과 자치 중립이라는 검증할 수 없는 가치로 공동체의 문화적 관행을 평가하는 절대적 척도로 작용하고 있었다.

기록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인식론적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각각의 공동체는 ‘기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매우 상이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은 기록의 공적 프레임에서 보면 약간 기이한 것일 수 있다. 공적 영역에서 기록이란 19세기 관료제의 산물로 대개 공공성과 신뢰성, 진본성의 가치를 지닌 문건이다. 그들에게 기록은 정형화되어 있으며, 공적 업무의 결과로 일정하고 지속적인 형태로 생산된다. 그리고 이는 곧 사실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서구의 표준화된 ‘기록’이라는 개념은 실제 다양한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기록’에 대해 사고할 때 사용하는 개념과 다르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이러한 공적

기록과는 상이한 문화적으로 민감한 (Culturally-sensitive) 기록을 생산해 낸다. 예를 들어, 동성애 공동체(Homosexual Community)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기록은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자 이야기이며, 그들의 삶 자체이다. 동성애 공동체는 성적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동성애는 “자신의 성과 동일한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이끌리는 것”이며 동성애자는 “이러한 성향에 근거한 정체성을 가지며 이를 공유한 공동체에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관련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로 정의된다.¹⁸⁾ 동성애 공동체의 핵심적 가치는 동일한 성적 지향성이며 그들의 기록은 이러한 공동체의 핵심 공통 경험과 기억을 반영하고 있다. 즉, 그들의 중요한 기억과 상징적인 가치는 대개 이러한 성적 정체성과 연관된 이미지나 인쇄물, 사건과 행위의 다양각색의 증거와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과 오랫동안 같은 장소와 시간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나 정서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거의 없다. 또한 대개 역사적으로 동성애자의 존재는 암묵적으로 혹은 음성적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 문화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 역시 주목 받은 적이 없었다. 이는 비단 그들이 자신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기록은 이성애자들이 보기에 여전히 기이한 것이었고, 공적으로 발설되거나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기록은 아카이브에 영구적으로 보존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지 못했다. 동성애자의 경험과 기억은 주변의 사회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전문직 아키비스트들도 이들의 기억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키비스트 역시 고유한 문화와 성격을 갖춘 아키비스트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상호 이해는 두 공동체 간의 인식론적 차이에 따른 긴장감에 기인한다. 아키비

18) “Homosexually,” *Oxford Dictionar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스트는 대개의 사회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받으며 제도권 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한 사회에서 아키비스트는 전문직으로 지식과 소양을 획득하기 위해 대학교육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는다. 종종 중산층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태어났으며 스스로도 안정된 중산층을 형성한다. 남성보다 여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동성애자이기보다 이성애자가 대다수이다. 이 결과 아키비스트가 동성애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현 사회의 지배 담론과 주류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이는 아키비스트가 진공상태의 가치중립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일정한 계층으로 존재하며, 인정하던 혹은 그렇지 않던 간에, 특수한 계급적 이해관계와 가치를 내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키비스트들 역시 공통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키비스트 공동체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고 전문직이 향유하는 고유한 문화적 아비투스(habitus)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아키비스트들도 동성애자들의 기억은 그저 외설스럽고 기이한 문화적 과편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는 타자의 기록을 타자의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아키비스트가 새로운, 혹은 더 다양한 기록에 관한 지식과 학습이 없기 때문만은 아님을 의미한다. 동성애 공동체의 기록이 이질적인 것은 동성애 공동체의 경험과 문화적 성향, 사고와 인지체계가 아키비스트의 문화 체계가 본질적으로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껏 많은 경우, 동성애자들의 경험과 기억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들이 기록을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가치와 경험을 그들의 방식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어즈의 식대로라면, 동성애자들의 기억과 기록에 대한 개념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독특한 것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 가치를 알기 어렵다.

이러한 경험은 비단 동성애 공동체와 같이 문화적으로 민감한 공동

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같이 극명히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동네 축구 동아리나, 마을아카이브 등 이질적인 문화적 접점에서 쉽게 발생한다. 김화경은 2011년 부산시 산복도로 재생 사업에 참여 산복도로 아카이브를 초량-영주지역에 처음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산복도로 아카이브는 산복도로 지역민의 삶, 이야기 추억을 담아내는 공간 설계를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공공기관의 공무원 뿐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주민, 근로자, 상인, 일반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수집했다. 이는 인류학자가 연구 대상인 원주민들 공동체에 접근할 때 처음 부딪히는 상황과 동일하다. 즉, 김화경은 “마을기록을 수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 뭘 얼마나 알겠어’라는 인식”이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산복도로의 경우 ‘부산’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산복도로 마을 공동체, 마을의 형성과정 등에 대해 외부 연구자가 학습을 하더라도 그 고유한 경험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녀에 따르면, 마을의 장소와 시간들은 사람들 구체적인 경험과 밀접히 연관되어 기억되었기 때문에, 공공 행정적 편의상 구획한 지번과 주소를 기반으로 지역을 이해하는 아키비스트들은 그 독특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¹⁹⁾”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식론적 차이는 우리가 종종 공동체 아카이브 중 특히나 문화적으로 민감한 공동체 아카이브(Culturally-sensitive community archives)나, 혹은 문화적 보편주의의 철저한 희생이 되어온 사회적 소수자 아카이브 등을 이해하려 할 때 더욱 쉽게 탐색된다. 예컨대 문화적 상이함은 동네 축구 회원 모임보다 노동자 공동체가, 동일한 문화적 토양에서 생성된 지역 공동체보다 국외에서 이주해온 다문화 이주 공동체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이들 기록이 가진 문화적 함의를

19) 김화경, 산복도로 관련 인터뷰, 2015. 12. 8; 김화경,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호, 2012, 143~61쪽.

무시한 채 아키비스트가 가진 지식과 기술로, 아카이브에서 서비스하기에 좀더 용이한 방식으로 그들의 기록을 평가하고 분류, 정리하는 것은 아키비스트의 해석을 공동체 기억에 강요하는 것일 뿐 실존하는 그들의 기억과 경험을 제대로 구현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민감한 공동체의 기록관리와 아카이브는 그 구성원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경험적 토대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²⁰⁾ 아키비스트와 인류학자는 외부인으로서 내부인을 이해해야 할 책임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해와 해석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히려 인식론적 차이에 대해 기어츠는 좀더 민감하고 솔직하게 반응할 것을 언급한다.

4. 아키비스트와 인류학자 : 타자의 타자성을 이해하기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적 타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인류학자는 원주민과의 인식론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아키비스트는 공동체와의 인식론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에 대해 기어츠는 이러한 차이는 사실상 극복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오히려 이러한 양자의 차이에서 오는 긴장감을 유지한 채 '두터운 묘사를 통해 타문화의 의미의 단면을 드러냄으로서 상이한 문화간의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어츠에게 있어 문화 연구는 절대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해석적이다. 구체적인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만 인간 행동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인간의 삶이 상징으로 이루어져

20) McKemish, Gilliland, and Ketelaar, "Communities of Memory: Pluralizing Archival Research and Education Agendas," *Archives and Manuscripts* Vol.33, 2005, pp.146~74.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적인 일관성을 가진 체계 속에 존재한다면 상징과 문화는 마치 기호와 텍스트의 관계로 대체되어 문화를 읽어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문화 연구에 해석학과 기호학의 원리를 교묘히 결합시킴으로써 기존의 사회 과학적 방법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 결과 문화는 텍스트인 동시에 컨텍스트가 되며 문화의 해석자는 텍스트를 두텁게 읽어 내려가는 작업과 세부 항목과 전체 항목을 오가는 해석적 순환의 작업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

기어츠적 함의를 따라가면 아키비스트의 이해는 마치 인류학자의 작업처럼 많은 주해서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아키비스트에게 정치적, 문화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 세계를 꿰뚫는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통찰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인가. 기어츠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가능하지 않고 이러한 이해가 오히려 진실 그 자체라기 보다는 ‘만들어진 것’ 즉 구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기어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인류학적 저서들은 인류학자의 해석일 뿐—그것은 두 번째 해석이거나 세 번째 해석일수도 있다. (사실 첫 번째 해석은 원주민만이 내릴 수 있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허구일 수 있다. 그것은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틀린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만들어진’라는 의미에서 허구라는 점을 인정한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인류학자의 작업이, 다른 사람의 사고 방식의 체계에 침투하는 것이 인류학적 해석의 중심에 있지만 그것이 기껏해야 타문화의 일상 생활과 경험에 대한 주해서를 만드는 작업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객관적 현실을 기술하는 것이 인류학적 해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류학자는 원주민의 문화 속에 개별적인 사건의 현상적인 의미만을 기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의 두터움을 읽어 내려가야 한다.” (기어츠, 『문화의 해석』, 11~51쪽).

따라서 그에 따르면, 상이한 문화 체계 내 속한 인류학자와 원주민, 아키비스트와 공동체, 즉 기록 생산자 간의 인식론적 간극을 줄일 수 없다면, 공동체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해석이 결국 객관적 진실 규명이 아니라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에 불과할 수 있다.

5. 저자로서 아키비스트 : 우리를 드러내기

기어츠에 따르면 인류학의 목적은 원주민에 대한 객관적 해석을 내리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두텁게 읽는데 있다. 그는 인류학자는 전지전능한 객관적 해석자의 자리에서 내려서 스스로의 해석이 타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해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나아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모순적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¹⁾ 아키비스트 역시 마찬가지로 즉, 객관적 이해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의 경험을 마치 우리의 경험처럼 감정이입을 통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동체와 그들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과 전문성 사이에서 오는 인식론적 긴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즉, 우리의 객관성이란 감정이입을 통한 그들의 이해가 아니라 사건과 기록에 대한 해석의 다층적 본질을 인정하고 우리의 해석도 이러한 두터운 해석의 층위 중 일부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는 공동체는 공동체 그 자체라기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하며 공동체 기록에 대한

21) 기어츠, 앞의 글, 2009, 11~51쪽.

우리의 해석 역시 절대적이고 단일한 해석이라기보다 수많은 해석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극적인 경험들은 엄격한 학문적, 이론적 토대로 훈련된 아키비스트의 관점에서 재구성되며 종종 개인의 인종, 국적, 성별, 교육에 따라서, 혹은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기도 한다. 기어츠를 따라서 인류학자와 마찬가지로 아키비스트 역시 절대 진능한 객관적 진리의 수호자의 자리로부터 문화라는 의미의 그물망에 갇혀 스스로의 의미체계를 확장시키는 거미로 강등된다. 해석을 내리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며 우리의 경험과 교육, 문화적 토대와 사회적 구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어츠는 말하길, 인류학자는 그 장소에 있었음이 분명하지만 자신의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글쓰기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교묘하게 숨겨왔다. 즉 그 장소에서 민족지를 수행했으니 자신의 존재가 글 속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랫동안 객관성을 옹호하기 위한 학문적 장치로 인정되어 왔다. 인류학자는 텍스트밖에 어디에 존재하는가. 기어츠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인류학적 텍스트라도 ‘익명의 중얼거림’은 없다라고 단언한다²²⁾. 나아가 관찰한 이가 텍스트의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교묘하게 숨길수록 학문적 객관성을 보장받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모순되고 이중적인 노력들은 종종 같은 장소에서 같은 민족지를 수행한 다른 인류학자의 텍스트 속에서 들통이 나곤 하는데 이들 모두 각각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라면 자기들이 본 것을 우리도 보고, 자기들이 느낀 것을 우리도 느끼며, 자기들이 느낀 결론을 우리도 내릴 것이라고 독자들을 설득한다. 그리하여 명백히 “저자의 존재가 드러나는 부분은 그 밖의 다른 난처한 요소들과 함께 서문, 주석, 부록으로 따로 처리되곤 한다²³⁾”는 것이다. 기어츠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대의

22) 위의 글, 29쪽.

23) 위의 글, 28쪽.

인류학자들 레비스트로스²⁴⁾와 에번스프리차드(Edward Evans-Pritchard), 말리노프스키(Bronisław Kasper Malinowski), 베네딕트(Ruth Benedict)의 민족지에 나타난 상상력과 은유를 분석하고 저자로서 인류학자들이 객관성으로 보이기 위해 어떠한 수사적 표현을 쓰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방식은 아카이브에서 마치 아키비스트에게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스스로를 드러내지 말 것을 종용한 것과 동일하다. 이는 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미를 생산자에게 양도하고 어떠한 가치로부터도 벗어난 초연함을 유지하도록 행동하는 것인데, 이것이 젠킨슨이 강조한 아키비스트가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어떠한 텍스트라도 저자가 없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떠한 아카이브라도 아키비스트의 개입이 없을 수 없다. 인류학자가 자신의 객관성을 숨기기 위해 글쓰기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교묘하게 숨긴 것과 마찬가지로 아키비스트 역시 그의 존재를 억지로 숨겨왔다. 좀더 표준화된 언어로, 좀 더 절제되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아카이브 시스템을 고안하고 내부의 기록을 기술함으로서 마치 우리가 그곳에서 작업한 적이 없는 듯 보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뿐 아니라 우리 역시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부서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실증주의적 바램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젠킨슨식의 실증주의적 객관성은 일종의 수사적이고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밖에 획득될 수 없다.

아키비스트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어디에 존재하는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기획자인 아키비스트는 도큐멘테이션의 어디에 존재하는가. 동시대의 수많은 경험과 기억 중 특정 기억 공동체를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한 아키비스트는 누구인가. 사실상 많은 사건 중에 특정 사건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기록 수집을 기획하고 수행한 아키비스트의 선택과 결정은, 기억의 재구성에 결정적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는 수집한 공동체의 텍스트를 그 컨텍스트에서 분리해 내고 물리적

24) 위의 글, 37~161쪽.

이동과 배열의 변화를 준다. 이후 아키비스트는 현상적으로 해석되지 않은 상태의 기록들을 우리의 인식론적 체계 속에 무관심하게 삽입함으로써 그 기록 속에 숨겨진 다양한 문화적 층위를 쉽게 사장시킨다.

그럼에도 항상 객관적 가치의 수호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했는데, 이제 아키비스트의 문화적 사회적 한계가 이러한 기록의 선별과 수집, 정리와 기술, 보존과 서비스 사이에 존재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 스스로의 이해는 기록 공동체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해석으로 이는 기록을 생산자가 객관적으로 그대로 정리하고 기술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 선별과 평가, 분류와 정리를 통한 아카이브 내의 아키발리제이션의 과정은 흔적으로 지워져야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며 아키비스트 본인 뿐 아니라 그 기록을 생산해 낸 공동체나 기록을 이용자 모두가 알 권리가 있다. 아카이브는 특정 이해에 따라 정리된 기록들이 일시적으로 질서를 이룬 상태로 그 속에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기록학에서 이영남과 조민지는 기호학적 글쓰기를 소개하고 스스로 기록학에서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영남은 아키비스트의 글쓰기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는 논술체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대해 불편해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그는 이야기와 은유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인류는 이야기와 은유를 통해 기억과 경험을 보존하고 전수해왔음을 밝히며 은유에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²⁵⁾

25) 이영남, 조민지, 「새로운 기록방법론을 위한 기호론적 접근」, 『기록학연구』 41호, 2014, 121~131쪽; 이외에도 국내에서 새로운 기록학적 접근에 대해서 좀 더 살펴 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이영남, 「기록의 역운: 〈포스트 1999〉를 전망하며」, 『기록학연구』 39호, 2014, 229~80쪽; 이영남, 「기록의 전회: 〈포스트1999〉를 전망하며(2)」, 『기록학연구』 40호, 2014, 225~77쪽; 이영남, 「상징아카이빙 :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8호, 2013, 125~87쪽.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로 보여지는 것은 호주의 쿠리 공동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메케미쉬와 샤논 포크헤드(Shannon Faulkhead), 린넷 러셀(Lynette Russell)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직접적인 글쓰기 방법을 시도하여 스스로를 드러낸 이영남과 달리, 글쓰기가 위치한 컨텍스트에 대한 프레임을 강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객관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호주의 쿠리(Koorie Community) 공동체 아카이브 프로젝트인 “신뢰와 기술: 원주민의 구술 기억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호주 메케미쉬와 포크헤드, 러셀은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아키비스트와 기록연구자들이 원주민과 호주 정부 사이에, 구술문화와 문자 문화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²⁶⁾

- 저자 소개

우리의 배경, 경험, 동기를 소개하는 것은 호주 원주민 사회의 기본 관습이다. 그리고 원주민의 구술 지식에서 누가 기록 생산자이며 어떻게 생산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출신을 밝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 린넷 러셀

나는 아카이브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인류학적 역사가로... 호주 서부 빅토리아주 원주민의 후손이다... 30년 이상 수많은 원주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략) ...이를 통해 호주의 많은 원주민에 관한 연구들이 원주민의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26) Sue McKemmish, Shannon Faulkhead, and Lynette Russell, “Distrust in the archive: reconciling records,” *Archival Science* Vol.11, 2011, pp.211~239; Anne Gilliland et al., “Pluralizing the Archival Paradigm: Can Archival Education in Pacific Rim Communities Address the Challenge?,” *American Archivist* Vol.71, 2008, pp.87~117.

- 샤논 포크헤드 나는 호주 북서부 지역의 순라시아(Sunraysia) 출신의 쿠리여성이다. 구전전통에 따라 인정된 호주원주민이자 영국, 독일, 스페인과 독일 혈통의 후손이다 …(중략)… 쿠리로 태어나고 현재까지도 쿠리들과 함께 살고 있다. …
- 슈 메케미쉬 나는 기록학 연구자이자 교육자이다. 식민지 시대에 호주 빅토리아 주에 정착한 영국계 아이리쉬인의 후손이다. 호주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여러 기록관리 전문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중략)… 기록학 연구자로서 아카이브가 압제의 도구인 동시에 화해의 도구 모두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아키비스트 공동체가 원주민 공동체 함께 (호주 역사와의) 화해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메케미쉬는 호주 쿠리 원주민의 구술 기억을 보존하는 중요성을 정치, 역사, 사회적 맥락을 자세히 설명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연구가 가지는 의도, 목적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²⁷⁾ 뿐 아니라 원주민과 연구자들 간 인식론적 차이의 가능성과, 또 다양한 연구자 간에 존재하는 인식론적 차이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논문의 서문에 개별 저자의

27) McKemmish, Faulkhead, and Russell, "Distrust in the archive: reconciling records," p.230; Ross, Fiona, Sue McKemmish, and Shannon Faulkhead. "Indigenous Knowledge and the Archives: Designing Trusted Archival Systems for Koorie Communities." *Archives and Manuscript* Vol.34, 2006, pp.112~151. 나아가 스스로가 화해와 매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들 양자와는 상이한 목적과 지적 배경을 가지고 '신뢰와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제껏 원주민 기록에 대한 연구는 문자문화와 구술문화에서 비롯되는 본질적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호주정부가 감시와 통제의 목적으로 원주민의 기록을 생산하고 보존했기 때문에 원주민과 호주 정부와의 신뢰가 무너졌다. 아카이브는 지금껏 식민주의적 관점을 유지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왔지만 이제 이러한 원주민 기억을 생산되고 보존되는 방식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을 통해 화해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함을 분명히 했다

개인적 배경과 관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 외부인과 내부인을 포함시켜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왜곡을 최소화하려 했을 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혹은 아카이브 이용자들에게) 연구에 누가 아키비스트인지, 그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떠한 목적과 의도로 수행하는지 드러냄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여 하였다. 스스로 연구가 위치한 층위를 밝히고 연구를 둘러싼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강화함으로써, 누가 어떻게 원주민 기억에 대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독자에게 일임했다. 즉, 독자는 공동체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아키비스트와 아카이빙의 방법과 목적-어떤 아키비스트가 어떠한 의도로 혹은 어떠한 관점에서 다큐멘테이션 했는지-에 대한 컨텍스트적 정보를 가지고 그 해석의 층위를 스스로 판단한다. 이는 연구자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보이기 위해 수사적 표현을 동원한 숨김의 방식이 아닌 텍스트 뿐 아니라 컨텍스트를 드러냄으로서 획득되는 개방적 방식이다.²⁸⁾ 즉 아키비스트가 도큐멘테이션의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 자체로서 확보될 수 있는 객관성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아키비스트가 누구인지, 어떠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으로 공동체 기록을 이해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아키비스트는 단순히 사실의 문화적 틀을, 즉 인간의 의미가 전달되는 모든 상징적, 언어적 특징들을 종종 무시해왔다. 우리들은 때때로 사료들이 마치 투명한 매개인 것처럼 다룬다. 그러나 의미의 두터움을 알리고 우리가 어디서 이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흑인 아카이브를 탐독하고 있는 백인 아키비스트나, 동성애 기록을 정리하는 이성애자 아키비스트, 페미니스트 기록을 수집하는 남성 아키비스트들의 노력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그들이 자신과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공동체 아카이브의 기록에 어떠한 해석적 판

28) McKemmish, Faulkhead, and Russell, "Distrust in the archive: reconciling records," pp.211~239

결을 내렸는지를 알도록 하는 논리적 객관성의 방법일 수 있다. 스스로를 감춤으로써 보장 받는 객관성이 아닌 스스로를 드러냄으로써 보장 받는 아키비스트 전문성의 가치이자 객관성이라 할 수 있다.

6. 결론

기어츠는 아키비스트가 자신이 연구하는 대상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다는 것, 즉 원주민과 완전한 동화를 통해 원주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하지만 또한 그는 그 반대편 극단에서 연구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초연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거부한다. 왜냐하면 기어츠에게 이 두 방법론의 극단은 모두 대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²⁹⁾ 이질적인 문화를 속한 아키비스트와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지평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거나 또한 가능한 모든 해석이 무한히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본고에서 기어츠적 인류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키비스트의 객관성이 얼마만큼 상이한 문화체계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성취 불가능한 객관성을 추구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는 감정 이입을 시도했던 말리노프스키가 누군가의 피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없다. 그들의 감정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아키비스트에게도 불가능하며, 아키비스트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은 이로부터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키비스트가 대상에 대한 스스로의

29) 기어츠, 앞의 글, 2009, 46쪽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 내린 해석의 두터운 층위를 드러냄으로서 독자들로부터 판단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본고의 목적이 기록학에서 기어즈의 두터운 묘사를 그대로 기록학적 묘사에 적용해야 함을, 혹은 그것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해석적 인류학 이론을 받아들여 그의 주장이 어떻게 아키비스트와 타자들, 아키비스트와 공동체 간의 인식론적 긴장을 유지한 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의 방법론적 글쓰기가 어떻게 기록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기록학적 함의를 고찰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공동체의 기억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인가. 물론 이 같은 문제제기가 아키비스트가 객관성을 포기했다거나 스스로의 주관성을 아무렇게나 도입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기록관리에 좀더 합리적인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아키비스트의 이론적 성찰과 반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a Archivist's Objectivity Based on Clifford Geertz's anthropological Approach

Youn, Eunha

It has been basic value and fundamental philosophy for a long time for archivists to protect neutrality and objectivity in records management. The demands to maintain objectivity of records management is directly related to protect the administrative and legal evidence of records for fulfilling jurisdictional goal, and more fundamentally, it is related with the intrinsic nature of archives. As an archivists' expertise is seems to be derived from ability to give objective-judge on record value, and candor to organize and classify records. Thus,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of archivists stipulates that all such obligations directly or indirectly. However, since Hans Booms and Terry Cook emphasize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archivists and highlighted the social power of archives, the discourse of archival objectivity gets to be given more attention to people. This article, following the cultural anthropologist Clifford Geertz' interpretative methodology theory, examine the archival implications to adopt the theory,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objectivity and archival otherness.

Key words : anthropological interpretative method, otherness, objectivity

